

문화 소재 중심의 중국어 회화교재에 대한 일고*

- 『說漢語 談文化』의 문제점 분석과 극복방안으로서의 한일 교재 검토

박 찬 욱
(서울여자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문화 소재 중심의 중국어 회화교재인 『說漢語 談文化(이하 談文化)』의 대화 구조 분석을 토대로 문화를 다루는 방향성을 성찰하고 언어 사회화란 관점에서 어문문화 통합성을 지향하는 교재생산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언어 사회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교실에서 이뤄지는 외국어 교육과정에서의 사회화에 대해 고찰해본다. 그리고 사회화의 기본 가정중 하나인 언어와 문화 간 관계를 성찰하기 위해 회화교재의 출판경향과 문화 중심의 회화서인 『談文化』의 기술 방향 및 회화 속 역할 분담의 경향을 분석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재를 검토하고 인문 통합적 성격의 회화교재 생산을 제안한다.

주제어 : 회화교재, 중국어, 문화, 『談文化』, 한일 교재, 방향성, 통합성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본고는 2015년 8월 26일~28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The 23rd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nese Linguistics(IACL23) and 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Sino-Korean Linguistics(ISSKL-1)”에서 “關於以文化為題材的會話教材裡所存在的偏向性:以『說漢語 談文化』為主”란 제하로 구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임을 밝힌다.

1. 문제의 제기

본고는 문화 소개 중심의 중국어 회화교재인 『說漢語 談文化』의 대화구조 분석을 토대로 문화를 다루는 방향성을 성찰하고 언어 사회화란 관점에서 어문·문화 통합성을 지향하는 교재생산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한국에서의 중국 언어학은 근간에 들어 비약적인 분화 및 발전을 거듭하였다. 학문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겠으나 차별성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자칫 기타 영역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우려 또한 있다. 자신의 것을 전문화하는 것은 물론 타인이 하는 일에도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일 때이다. 언어학에서의 정의하기 방법을 상기해보자.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나의 비교대상을 전제해야 한다. 비교대상도 단 하나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성질은 단 하나의 성질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쫓개고 쫓개고 다시 원자 수준까지 쫓개다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듯, 순수이든 응용이든 더 이상 “+ / —” 식의 이분법적 세분화는 이쯤에서 멈추어야 한다. 원자 수준까지 쫓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유한한 원자의 합인 것을 깨닫게 되지만 비록 동일한 원자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의 합이 곧 동일한 물(物)이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소리도 쫓개고 의미도 쫓개고 문장 성분도 쫓개고 하여 결국 유한한 요소의 합이 문장인 것은 깨달아도 그 합이 곧 동일한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일 수는 없다. 형식이 달라도 같은 의도를 내포하거나 동일한 형식임에도 상이한 의도를 드러내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다.

이에 대해 ‘왜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에 마주하게 되는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와 만난다. 맥락에 대한 문제, 즉 문화다. 정신문화네 물질문화네 하며 시도된 문화의 정의 내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²⁾ 그것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정의는 물론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

1) 『說漢語 談文化』는 이하 『談文化』로 약칭한다.

2) 한상복 등(2011:73)은 다양한 문화의 정의에 대해 기준을 정하려 했던 1950년대의 선행연구를 언급하며 검토의 대상으로서 당시 175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정의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다. 그동안 실천적 문제보다 이론적 문제, 경험적 결과보다 체계적 분류 문제에 친착한 데는 어쩌면 ‘먼저 정의를 내려야’ 라는 명제에 발목이 잡혀 그 다음 논의를 소홀히 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에 본고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원론적 논의는 기존 연구의 몫으로 돌리고자 한다.³⁾ 대신 본고에서는 ‘관점’의 문제를 중심으로 문화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것과 ‘통합’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재 구성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먼저 문화를 교수학습하는 그 과정 역시 또 다른 언어 사회화 과정이란 점을 부각시킨다. 다음으로, 문화 소재 중심의 중국어 회화교재인 『談文化』의 대화구조를 ‘균형(또는 평등)’이란 시각에서 분석한다. 그런 다음 비교 대상으로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출판된 문화 소재 중심의 중국어 교재를 검토한 뒤 『談文化』의 분석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을 토대로 문화 교재 구성 시 주의할 점을 외국어학습 자체가 갖는 기능을 본위로 논한다. 끝으로 요약과 함께 분석의 함축을 제시한다.

II. 교실 속 언어사회화

교실은 교수와 학습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만 하는 곳으로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수와 학습도 인적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논의를 위해 먼저 (언어)사회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다. Swann 등(2004:285)은 *A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에서 “Socialisa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3) 문화에 대한 정의는 백경숙(2012:243~244)을, 문화 교육의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맹주억(2011)을 참고할 수 있다. 더불어, 한상복 등(2011:80~88)은,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해도 문화의 속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 일치를 보인다고 하며 다음 다섯 가지 속성을 꼽고 있다. ① 문화는 공유된 것이다, ② 문화는 학습된 것이다, ③ 문화는 축적된 것이다, ④ 문화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⑤ 문화는 항상 변한다.

The process by which people learn the culture of their society, primarily via the family and peer group during childhood, and via school and the workplace later on. Language is a key part of this process, both as a medium for transmitting culture as well as being a part of that culture.

(사람들이 유아기동안에는 제일 먼저 가족과 동료 그룹을 통해, 그 뒤로는 학교와 직장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다. 언어는 문화 간 매개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의 일부로서 이 과정의 핵심 파트를 이룬다.)

위의 정의를 근거로, 사회화란 여러 공동체(즉, 가족, 동료 그룹, 학교, 직장 등) 속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위 수행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나아가 어느 공동체 속에서도 별다른 충돌 없이 융화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적응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공동체 간 전환에도 해당 공동체 소속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고 그래서 충돌 없이 일상의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언어가 사회화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Ochs(1988:14)의 견해를 참고해보자.

Given that meanings and functions are to a large extent socioculturally organized, linguistic knowledge is embedded in sociocultur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understandings of the social organization of everyday life, cultural ideologies, moral values, beliefs, and structures of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are to a large extent acquired through the medium of language.

(의미와 기능은 큰 틀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적 지식은 사회문화적 지식의 일부이다. 또한 일상생활, 문화이데올로기, 도덕관, 믿음, 그리고 지식과 해석 구조의 사회 구성체에 대한 이해 역시 큰 틀에서 언어란 매개를 통해 습득된다.)

말의 형식은 랑그에서 상황에 맞게 직조된 결과이지만 그것이 ‘그 때’ ‘그 곳’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사회문화적 맥락이 불가결하다. 역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찰(또는 직감)이 따라야 ‘그 말을 만들 것인가’하는 형식산출의 상위 문제—그 말을 할 것인가 또는 해도 되는가—가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기 “언어는 사회문화적”이고 사회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언어에 의해 매개된다”는 말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언어사회화란 결국 ‘언어를 통한 사회화, 언어 사용을 위한 사회화(socialization through language and socialization to use language, Ochs 1988:14)’를 포괄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언어처럼 수준별로는 평가될 수 없는 지식이나 감정 그리고 사회적 행위 구성 등을 수준과 다소에 상관없이 경험한 사람들이 언어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로써 인간의 조건을 관찰, 구성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상호작용을 조직한다는 점에서 사회화는 궁극적으로 쌍방향적(two-way street)이다.(Ochs 2000:230, 232)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사회화를 고찰해보자. 우선 역할 면에서, 교실은 더 이상 교수자의 강의를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는 곳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강의에 대한 학습자의 수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수는 학습자에게 또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피드백을 주며 쌍방 간에 수업 방향을 조정한다고 봐야할 것이다. 나아가 이제는 교수자 뿐만 아니라 학습자 역시 교수자를 평가하는 시대다. 수행 면에서 보자. 교수는 학습자의 능력 제고를 위해 중심 과정을 기획하고 내용을 선별한 뒤 교실에서 공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학습자는 자신이 미래 어딘가에서 수행할 기능을, 교실을 하나의 가상공간으로 설정하여 실천한다. 실천 역시 수동적이지 않다. 갖가지 궁리로써 자신의 (암시적)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관계 면에서 보자. 교실은 교수자와 학습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선다. 교실에서의 교육은 일대일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자신들끼리 학습내용은 물론 정보를 공유하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럼으로써 생각의 공유는 물론 행동까지 공유한다.

그렇다면 상기 ‘역할’, ‘수행’, ‘관계’를 교실에서의 중국어 교수·학습에 대

응시켜보자. 학교는 교수자에게 직장이란 공동체이며 학습자에게는 학교라는 공동체이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교수자가 해야 할 것과 학습자가 해야 할 것이 나뉜다. 두 문화공동체에 속한 양자의 만남이 교실이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교수자는 강의를 설계하고 수행하며 학습자와 지식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한다. 교수 후에는 개선점을 찾아 차후를 준비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설계한 수업 계획 속에서 교수자의 지식을 (비판적으로)수용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외국어 수업이란 특징 상 지식만이 아닌 실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주요행위자는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이다. 교실이란 특수 공간에서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의 과정이 있다는 점은 이론중심의 수업과 다른 언어수업의 특징 중 하나다. 그만큼 모어에 의한 사회화는 물론 외국어에 의한 사회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언어사회화는, 상기 정의에서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듯, 모어를 배우는 어린 아이를 바탕으로 두고 설정한 개념이다. 평생학습의 관점으로 시각의 폭을 넓혀 보더라도 상기 정의에 바탕한 언어사회화 개념은 국경이나 민족을 넘지 않는다. 국가라는 제도적 공동체 내에서 분류된, 가족, 동료그룹, 학교, 직장 등의 하위 공동체가 주요 토대를 이룬다. 그러므로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소속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에 의해 고정된 제도와 관습 등을 어느 정도 체화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가가 사회화의 정도를 가능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만 바탕을 둘 경우 외국어에 의한 언어사회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교수자와 학습자 간 각기 다른 공동체의 일원이 교실이란 공간에서 교수와 학습을 위해 모인다. 하지만 교수학습의 대상이자 주체는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다. 이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제도와 관습을 몸에 익힌 성인이 중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어린이의 사회화가 아닌 성인의 사회화이다. 그런데 그들의 사회화 중점은 모어 공동체 속의 사회화가 아닌 중국어란 외국어 공동체 속으로의 사회화이다. 그리고 그 과정의 매개어는 중국어이다. 앞서 Ochs(1988)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어론 통한 사회화와 그것의 사용을 위한 사회화’를 한국이란 타국의 교실에서 지향하는 격이다. 하나의 거시적 공동체와 여러 미시적 공동체를 토대로 어린이의 언어, 사회, 문

화적 성장과정을 설명하였다면, 한국 교실에서의 중국어 학습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거시적 공동체를 넘나들기 위해 (한국의)학교라는 제도적 공동체 속에서 성인 학습자가 중국의 여러 미시적 공동체를 가정하며 언어, 사회,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상기 Swann(2004)의 정의에서 밝혔듯, 언어사회화는 언어가 문화 간의 매개자 그것의 일부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 하에 이뤄지는 교실에서의 중국어 학습은 중국어를 학습함으로써 중국의 거/미시적 공동체로 융화되어 가는 과정이자 원만한 융화를 위해 중국어 사용을 연습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중국어학습에 있어 언어에만 천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교수자 역시 중국어란 외국 ‘어’ 학습을 이유로 타국/민족의 ‘언어’ 교수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언어의 학습만으로는 중국으로의 경계 넘나들기, 즉 사회화를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어를 학습하는 궁극적 이유를 원어민과의 원활한 소통에 둔다면, 이제 중국어 교수학습은 언어면 언어, 문학이면 문학이 아닌 어-문학이자 어-문화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교수학습의 설계 및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어의 모국이 아닌 한국에서, 모어가 아닌 중국어로 중국어 공동체를 가정하며 성취해야 하는 사회화를 교실에서는 어떻게 달성해야 할까. 이 같은 목적 달성의 시도에는 필경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실이란 물리적 한계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 한계까지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를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주창하면서도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관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멈추고 또 그에 소홀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에 연유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에 본고는 언어사회화에 대한 고찰을 위해 먼저 문화 소재 중심의 중국어 교재인 『談文化』의 대화구조를 분석하고 문화를 기술하는 양상과, 반대로, 타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교재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교수자는 수업의 계획을 교재 중심으로 껴한다는 데서 비롯한다. 이에 대한 관찰은 또한 학습자의 사회화를 관찰하고 유도해야 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학습자의 입장

에서도 어떤 교재를 토대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사회화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문화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중국어수업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각적으로 구현된 교재를 검토, 분석함으로써 좀 더 명료해질 것이다.

Ⅲ. 문화 기술의 방향성

상기 ‘방향성’이란 말은 다음의 두 가지 편향성 문제를 내포한다. 하나는, 교재는 중국어로서 무엇을 표현하는 데 기술해 왔는가이고 나머지 하나는, 교재 속 인물 간 역할 분담은 공평하게 기술된 것인가이다.

첫 번째 문제—교재는 중국어로서 무엇을 표현하는 데 기술해 왔는가—를 살펴보자. 언어를 이용한 문화의 소개를 여러 경우의 수로 대응시켜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중국>
① 한국어 → 자국 문화	⑤ 중국어 → 자국 문화
② 외국어 → 자국 문화	⑥ 외국어 → 자국 문화
③ 한국어 → 외국 문화	⑦ 중국어 → 외국 문화
④ 외국어 → 외국 문화	⑧ 외국어 → 외국 문화

①번 유형은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사용되는 교재 유형이고 ②번은 중국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이다. ③번은 한국어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로서 중국어를 접하는데 필요한 교양 또는 전공서가 그에 속한다. ④번은 중국어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로서 전형적인 중국어 수업교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⑤번은 중국어로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로서 ④번 유형과 대칭을 이루는데 ⑤번 유형의 교재 중에서 한국어로 수입된 교재의 상당수가 ④번 유형으로 귀속될 수 있다. ⑥번은, 한국어나 일본어도 포함되나, 주로 영어를 이용하여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교재 유형이다. ⑦번은 중국어로 외국문화를 소개하

는 경우로서 중국의 내국인 교육을 위해 제작된 교재 유형이다. ⑧번은 주로 영어를 이용하여 외국을 소개하는 경우로서 역시 내국인 교육을 위한 교재 유형이다.

이 중, 한국에서 진행되는 중국어 수업에서 문화를 다룰 때 소급될 수 있는 교재 유형은 ②번~⑤번 유형이다. 문화를 단행본의 형태로써 단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양적인 면에서 봤을 때 ③번 유형의 교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회화교재라면 ‘상식’이나 ‘팁’이란 제목으로 문화와 관련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삽입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원저에는 부재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한 장 한 썩선 정도로 문화부분이 거의 관례처럼 배분, 삽입된다.⁴⁾ 그리고 그간 ‘문화’라는 제목으로 나온 회화교재를 보면 대부분 ④ 또는 ⑤의 양식을 띠어왔다.⁵⁾ 근간에 들어 출판이 시작된 유형이 ②번 유형이다.⁶⁾ 이는, 다시 말해, 그동안 중국에서 중국어로서 자국 문화를 소개한 교재를 수입, 편집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어로서 중국 문화를 소개한 교재가 줄곧 주요한 분위기를 점해왔다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역으로는 그동안, 중국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중국어를 이용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소개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언어 학습의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면 문화의 기술 대상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어를 교수 학습하는 목적이 중국어로서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지는 않지 않은가. 중국 문화의 수용을 중국어로 수행함으로써 타국의 문화 넘나들기에 절반을 할애했다면 나머지 반은 그 외국어로서 학습자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파해야

4) 『301구로 끝내는 중국어회화』가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일 수 있다. 원저는 문화가 없는 언어 중심의 구성을 보이지만 한국으로 수입된 교재에는 문화 부분이 매 장마다 삽입되어 있다. 참고로, 회화교재에 배치된 문화 섹션의 역할에 대해서는 박찬욱(2014)을 참고할 수 있다.

5) 吳曉露 主編, 『說漢語 談文化』,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楊瑞, 李泉 편저, 『중국문화로 배우는 중국어회화』, 임대근 편역, 2000, 다락원.
威恩仙, 『文化中國語』, 차이나하우스, 2006.

劉德聯, 宋海燕, 張麗 편저, 『新문화 중국어』, 김효민, 고점복 편역, 다락원, 2008.

6) 범노신, 박계연, 『PR Korea 우리 문화 중국어로 자랑해봐』, 원타임즈, 2008.
임대근, 『한국通 중국어』, 다락원, 2014.

하지 않을까?) 중국어란 외국어로써 중국인과 소통하려면 중국의 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정당하다. 하지만 중국어 교수·학습에 있어 그동안 중국 문화만 잘 알면 된다는 일방적 문화관이 저변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명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정상적 소통이란 일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닌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양자 간 대화의 맥락을 이루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어를 교수·학습한다고 하여 중국 문화만을 편향적으로 교수·학습해온 그간의 관행에 대해서는 분명 재고가 요구된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궁극의 목적이 외국어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면(김하수 2008:238)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중국어로 한국의 문화를 표현하는 데 소홀했던 점도 분명 성찰이 필요하다. 이 같은 재고와 성찰이 밑바탕 되어야 그동안 외국 교재를 수입하고 편집하는 데 치중했던 그간의 교재 수용과 편집 방식에도 변화가 뒤따를 것이다.

두 번째 문제—교재 속 인물 간 역할 분담은 공평하게 기술된 것인가—를 살펴보자. 이 같은 문제의 제기는 첫 번째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중국어로써 중국의 문화만 배워도 된다는 일방적 문화관은 교재의 대화 기술면에서, 결과적으로, 역할의 비대칭—아는자 대 모르는 자—적 구도를 마치 자연스러운 듯이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대화의 행위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찰가능한 데 중국어로 중국 문화를 소개한 ⑤번 유형, 즉 중국에서 중국어로 자국의 문화를 소개한 교재—『談文化』—에 드러난 대화구조는 대략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예를 살펴보자.

(1)

麥克爾: **對不起, 王大衛, 我想問一下,** 剛才你怎麼問也不問就給他喝汽水, 他怎麼也沒說: “不要, 不要”?

王大衛: **哈哈, 你觀察得真仔細。** 在中國, 很好的朋友同事之間是不必可氣的, 說話也比較隨便, 直截了當。再說, 中國人招待客人

7)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상기 관점은 순수하게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소통의 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지 문화를 다룰 때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등의 이념이 반영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時，一般不問客人是不是想吃甚麼或是想喝甚麼，而是直接把東西堆到客人面前，請客人挑選。

麥克爾: 哦?為甚麼不問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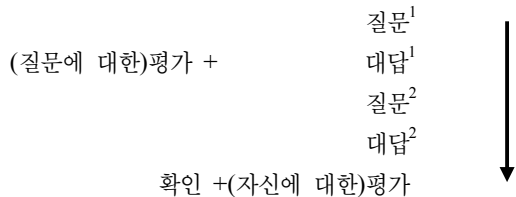
王大衛: 如果主人先問客人的話，客人一般總是謝絕的，這樣主人就好像並非真心地要招待客人。所以主人一般不問客人，而是主動邀請。為了表示自己的心意，主人還會千方百計地勸請客人，而客人則要表示禮讓，說些：“謝謝”、“不必麻煩”、“不用了”、“我自己來”等等客氣話。總之，這都是客套，時間長了就成習慣了。

麥克爾: 真是獨特的習慣! 看來我知道得還太少。

(『談文化』, p.2)

예(1)을 보면麥克爾의 질문—“我想問一下”—에서부터 문화와 관련된 대화가 시작된다.王大衛는麥克爾의 질문을 평가한 뒤 대답을 하고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을麥克爾이 다시 묻는다.王大衛가 이에 대한 답을 주자麥克爾은 동서양 습관의 차이에 대해 놀라워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로 대화를 맺는다. 이 같은 대화구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



두 번째 유형은 질문이 아닌 문제의 제기로서 시작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3)

麥克爾: 哎，剛才，你們打招呼的方式和稱呼好像也有點特別。你們不是一家人，可卻稱哥哥、爺爺甚麼的，那個小胖竟然還叫我“叔叔”。

王大衛: 哈一, 大概他看你好像比我大, 所以就把你抬高一輩了。中國人經常用家庭的稱謂來稱呼別人, 比如“爺爺、奶奶、阿姨、叔叔、大媽、大伯、大嫂、大哥、大姐、小弟弟、小妹妹”等等, 只有“爸爸、媽媽”不能亂用。這樣稱呼既表示尊敬、客氣, 又表明關係比較親熱。

麥克爾: 就像一家人一樣, 是嗎?

王大衛: 對。要是你的年齡大, 就會受到尊重; 如果年紀小, 就會得到關心、照顧。初次見面, 互問年齡, 有時也是為了區別長幼, 便於稱呼。

麥克爾: 我明白了。那麼打招呼除了說“你好”以外, 是不是還有別的?

王大衛: 有很多。初次見面或是不太熟的人之間打招呼, 通常用“你好”。熟朋友之間見面, 常用的招呼方式是根據對方情況問對方在幹甚麼。像“上班啦?”“上課去呀?”“上哪兒去?”“買甚麼呢?”等等。在吃飯時間, 還常常問“吃了沒有?”, 休息時間常說“還沒休息呀?”“還在忙啊?”這些都只是招呼, 實際上並不是一定要知道對方在幹甚麼, 就像你們說一聲“Hi”一樣。

麥克爾: 原來是這樣。難怪我聽你經常這麼問我, 我還以為你也是好管閑事呢。

王大衛: 那你可是冤枉了好人。

麥克爾: 哎, 那麼又應該怎麼回答呢?

王大衛: 很簡單,

(『談文化』, pp.19~20)

예(3)에서麥克爾은 자신의 문화 배경과 상이한 점을 “你們打招呼的方式和稱呼好像也有點特別”로써 제기한다. 그러자王大衛가 그에 대한 설명을 주 의할 점과 함께 제시한다. 이에 대해麥克爾은 다시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 하고王大衛는 그에 대한 재확인과 부연 설명을 부가한다.麥克爾은 그제야 자신의 이해를 표명한 뒤 또 다른 예가 없는지 질문으로써 대화를 확장한다. 그 뒤로는 예(2)와 같이 질문과 대답이 순환하면서 대화가 이어진다. 이와 같은 대화의 구조를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4)

진술(=설명요구)
 설명
 (확인)요구
 수용 + 부연
 표현 + 질문¹
 대답¹
 질문²
 대답²
 ...



세 번째 유형은 질문이나 진술을 통한 문제의 제기가 아닌 불평/불만으로 써 대화가 시작된다.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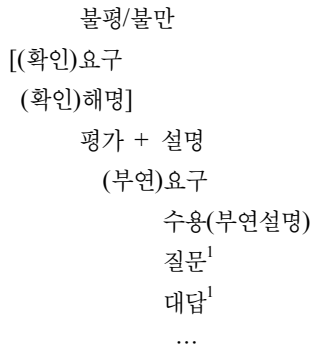
[爺 爺:你是哪裏人啊? ←출신
 麥克爾: 美國。
 爺 爺:你今年多大了?父母是做甚麼工作的? ←배경
 麥克爾: 二十五歲。我父親是個工程師, 母親在政府部門工作。
 爺 爺: 那他們掙的錢不少吧?..... ←수입
 麥克爾: 我是靠國家獎學金來中國學習的。
 爺 爺: 家裡還有其他兄弟姐妹嗎? ←관계
 麥克爾: 只有我一個。.....]
 麥克爾: (搖搖頭)這位老大爺, 真愛管閑事。
 王大衛: **管閑事?**
 麥克爾: 我的年齡, 我的父母, 我的家庭, **跟他有甚麼關係?幹嘛問這些?**
 王大衛: **哦, 我想你是誤會了。我們的習慣跟你們不一樣。**個人和家庭的
 某些情況在你們看來是隱私, 但中國人卻常作為話題, 為的是
 能夠相互了解, 因為中國人的交際文化是一種映照性的文化。
 麥克爾: **映照性文化?你的意思是一**
 王大衛: **也就是說人們在交際中時時拿自己與別人相映照、相比較, 總
 要根據對方的年齡、地位、家庭和與自己的關係等不同的情**

況，來決定自己應該怎麼說怎麼做，所以，中國人初次見面時常常互相詢問這方面的情況，既能互相了解，又能讓談話繼續下去，時間長了，就成為一種習慣。……

(『談文化』, pp.18~19)

세 번째 유형은 예(5)와 같이 불평이나 불만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서양인에게 출신 지역, 가족 배경, 부모의 수입, 가족 관계 등 爺爺의 연이은 질문에 麥克爾은, 비록 대답은 하지만, “管閑事”라는 말로 불만을 드러낸다. 이는 麥克爾의 행위를 표현한 “(搖搖頭)”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대해 王大衛는 “管閑事?”라는 동어 반복으로 麥克爾에게 의아함을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 동어 반복이 아닌 두 문화 간의 충돌을 언어로써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麥克爾은 자신이 왜 爺爺가 管閑事하다고 생각했는지를 말하는데 그에 대해 王大衛는, “我想你是誤會了”를 통해서 알 수 있듯,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이어서 王大衛는 오해를 풀 수 있을 만한 단서를 설명으로써 제공하고 麥克爾은 “你的意思是一”라는 말로 부연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자 王大衛는 “映照性的文化”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 그 뒤로는 역시 예(2)와 (4)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질문과 대답이 순환하면서 대화가 확장된다. 상기 대화의 구조를 정리하면 대략 아래와 같다.

(6)



상기 예들은 교재의 대화구조 속에서 인물의 역할 분담이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은 문화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 내국인은 문화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방식이 정말 온당한 것일까. 문화를 주제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에 대화를 나눌 때 늘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불평하고 깨닫는 것은 외국인의 몫이어야 할까.

이 같은 대화구조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첫째, 앞서 보았던 것처럼, 대화의 구조가 불균형적이다. 그런데 이 불균형은 상식적이지 않다. 표면적으로, 麥克爾과 王大衛는 친구 관계이며 대화도 ‘질문—대답’의 인접 쌍이 순환하며 확장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질문’이란 행위가 정보 부족의 상태에서부터 유발된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가 정보를 가진 또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자.(Kasher 2010:375) 이는 중국어 교재라고 해서 문화를 배우는 경로까지 중국인을 중심으로, 혹은 중국인을 마치 교사와 같이 위치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던진다. 나아가 이 같은 불균형의 문제는 외국인의 대화참여 문제로까지 확대되는데, 자신의 문화권에서 이미 사회화의 과정을 거친 외국인에게 자신의 문화와 비교할 여지를 주지 않는 대화의 구성은 자칫, 교사로서의 중국인과 상반되게, 외국인을 항상 학생으로 위치시키는 위험성을 갖는다.

둘째, 상기 불균형적인 대화구조의 기저에는 지식 권력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예(1)~(6)은 일상의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제도 담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⁸⁾ 즉, 지식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외국인은 ‘자평’이나 ‘각오’ 등으로, 그리고 내국인은 상대에 대한 ‘평가’나 ‘권고’, ‘조언’ 등으로 대화가 이어진다. 예컨대, 예(1)의 “看來我知道得還太少”나 예(3)의 갈무리 부분에 출현하는 “看來我應該多了解中國的風俗習慣(『談文化』, p.21)”과 같은 ‘자평’, “那我還得注意謙詞和敬詞的用法, 別用錯了(『談文化』, p.37)” 등의 ‘각오’는 모두 외국인의 발언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에, 외국인의 간단한

8) 제도 담화(talk in institutional settings)란 법정, 교실, 미디어, 의료상담, 정신과 면담 등과 같이 비전문가 대 전문가 간 상호작용(lay—professional interaction)의 양식을 띤 대화를 가리킨다.(Hutchby 등 1998:145)

발언에도 “你對中國還挺了解的嘛(『談文化』, p.1)”나 “你觀察得真仔細” 등의 ‘칭찬/평가’와 “時間長了, 就成為一種習慣” 등의 ‘조언’은 모두 내국인의 발언이다. 상기와 같은 ‘자평’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데서 비롯된 표현행위이다. 이는 수평이나 수직이나 하는 인적관계와는 관련이 없다. 하지만 ‘칭찬’이나 ‘평가’는 보통 쌍방 간 수직적 관계를 목계로 한(기본적으로 최소한 수평적 관계는 아니다) 행위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발화행위와 차이를 보인다.

상기와 같은 문제들은 일반 교양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문화 지식을 대화 형식으로써 기술할 때 대화자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재고를 요구한다. 다시 말해, 문화를 중심 소재로 한 중국어 회화교재라면, ‘교사—학생’의 관계를 ‘친구—친구’라는 형식으로만 포괄할 것이 아니라 회화라는 틀 속으로, 즉 수평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라는 주제가 언급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화에 대한 기여의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외국인도 타국의 문화에 대해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정해야 가능하다. 예컨대,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중국어 교재의 한 단락을 참고해 보자.

(7)

金美真: 我們到釜山了!

王 東: 我在中國聽說過“釜山”這個城市好幾次。 ←

金美真: 是嗎?

王 東: 是的。 “釜山國際電影節”特別有名! ←

金美真: 啊!對。釜山電影節已經成爲了世界級的電影節。

它在每年十月份舉行。我們只能期待下次機會啦!

王 東: 很遺憾!我以後一定要來參觀釜山電影節! ←

那麼釜山除了電影節以外, 還有甚麼值得體驗的東西呢?

金美真: 釜山是韓國的第二大城市, 位於韓國的東南部,

依山傍海, 生活起來很舒適。

王 東: 有山有海, 我想好吃的東西一定很多。 ←

(『한국通중국어』, p.3)

예(7)을 보면, 중국인 王東은 金美真과의 대화에서 “釜山”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다. 교재는, “我在中國聽說過“釜山”這個城市好幾次”, “釜

山國際電影節”特別有名”등으로부터 알 수 있듯, 王東이란 인물을 한국으로 오기 전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또 여러 방면으로 소식을 전해들은 외국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식이 전혀 없는, 그래서 내국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지식을 얻어야 하는 외국인이 아니다. 『談文化』와 같이 “還有甚麼值得體驗的東西呢?”라는 말로 대화를 확장해 간다는 점에서는 흡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金美眞과의 대화를 수평적으로 이어가는 토대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갖는다. 이는 문화 소재를 중심으로 한 교재는, 교양서로써도 알 수 있는 지식임에도 대화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이상, 일방적인 불균형적 대화구조는 가급적 지양하고 상호작용이란 수평적 관점에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IV. 교재의 인문 통합성

문화 소재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 회화교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회화교재의 구성에 있어 언어와 문화 중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우선 필자는 문화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기 힘들다. 문화 자체는 자국어로도 교양서의 유형으로써 충분히 심도 있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기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언어를 통한 타문화 경계 넘기에 있어 문화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검토한 바 있는 언어를 통한 사회화와 관련된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서, 그동안 암암리에 묵시해온 ‘언어면 언어, 문화면 문화(또는 문화이면 문학)’라는 도식을 이제는 탈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⁹⁾ ‘언어를 통한 사회화, 언어 사용을 위한 사회화’(Ochs 1988:14)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언어와 문화는 수업에서, 특히 교재에서부터 어문·문화의 통합을 꾀할

9) 실제로도 그동안 어학 교재에서의 문화 섹션은 본문에서 제시한 대화 내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제시되어 왔다. 그 예로서 박찬욱(2014:497~498)은, 중국인 저자의 한국인 대상 회화교재 속 ‘본문—문화’ 간 연관성이 약 71%, 그리고 한국인 저자의 회화교재가 약 43% 정도로 무관하다고 하면서 “문화 자체의 제시를 위해 문화섹션을 이용하는 경향을 띤다”고 한 바 있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언어와 문화 중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언어 아니면 문화’라는 양분의 문제가 아닌, 어·문·문화의 통합을 꾀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 회화가 중심이 되고 문화는 회화본문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¹⁰⁾ 이는 기존의 회화서 대부분이 쉽게 취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예컨대, 식당에서의 주문과 음용 및 계산 등 식당에서 할 수 있는 일련의 예상 가능한 행위들을 회화 내용으로 할 경우, ‘음식’하면 중국의 ‘4대 요리’, ‘8대 요리’ 등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내오는 순서나 음용의 순서, 취식의 방법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된 문화적 함의 등을 문화색션에 제시하는 것이다.(박찬욱 2014:500~502)¹¹⁾

둘째, 회화가 중심이 되되 회화 내용 자체가 문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범위 면에서 보면 자칫 그 범위가 넓을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국내외 교재를 막론하고 교재 속에 제시된 회화들은 모두 그 자체로서 해당 언어공동체가 공유하는 말하기 행위관습의 일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박찬욱 2011:496) 때문에 모든 교재가 이 유형으로 귀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의 두 번째 유형은 본고의 분석대상 『談文化』과 같이 문화 소재 중심의 회화교재로 국한된다. 이는 앞 장의 분석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관련된 예를 논하지 않겠다.

셋째, 문화가 중심이되 그것을 토대로 회화가 구성되는 방식이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고전 문학 작품의 스토리를 원용하여 현대감각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식도 그 예 중의 하나가 될 텐데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던 반면, 최근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출간된 교재가 있다.¹²⁾ 시도가 신선한데다 어·문학 및 어·문화 통합성을 지향한다는 측면

10) 여기서의 ‘보충’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당 과에서 목표로 하는 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여”(박찬욱 2014:502)라고 할 수 있다.

11)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는 Yan, M. M.과 Jennifer L. L.(1998)의 *Interactions I: A Cognitive Approach to Beginning Chinese*(Taipei: SMC publishing inc.) 제10장(pp.212~240)을 참고할 수 있다.

12) 필자는 본서를 회화교재로 보고 있으나 일본 아마존에서는 잡지로 분류하고 있다.



에서 본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면이 많으므로 조금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왼쪽에 보이는 교재는 『삼국지 등장인물로 배우는 중국어』로서 부제가 『초급 회화집』이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목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일상의 인물이 아닌 문학 속의 인물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인물이 현대의 일상을 산다. 이 같은 설정은 삼국지의 스토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나 무리한 상황설정이 필요 없다는 이

점이 있다. 역으로, 회화를 문화적인 내용과 자연스럽게 엮을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문화 소재 중심의 회화교재가 될 수 있다.

본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 생활편(プライベート)”, “바깥 생활편(街で)”, “비즈니스편(ビジネス)”, “응용편(応用)”으로 나뉜다. 그리고 중간 부록으로서 “삼국지에서 파생된 관용표현(三国志から派生した慣用表現)”과 “삼국에서 파생된 사자숙어(三国志から派生した四字熟語)”가 배치되어 있다. 각 편에 소속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개인생활	바깥생활	비즈니스	응용
인사(あいさつ)	약속 (待ち合わせ)	전화(電話)	PC(PC)
식사(食事をとる)	길묻기 (道を聞く)	회사방문 (会社訪問)	은행(銀行)
TV시청 (テレビの前で)	구매(買い物)	가격협상 (価格交渉)	예약(予約)
말다툼(ケンカ)	계산(お勘定)	계약(契約)	교통여행 (交通トラブル)
감사(ありがとう)	문진(病院で)		관광(観光)

이는 아마도 日中通信社라는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잡지 『聽く中国語』의 별책 시리즈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각 파트마다 출현하는 인물 구성이 삼국지의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그에 비추어 예상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개인 생활”의 주제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가, “바깥 생활”의 주제는 여포와 초선이(병원에서의 의사는 화타이다), “비즈니스편” 주제는 유비, 제갈공명, 손권, 주유가, 마지막으로 “응용편”에서는 관계의 친소나 이익관계와 상관없이 유비, 조조, 손권, 주유, 관우, 장비 등이 출현한다. 이를 각 파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생활	바깥생활	비즈니스	응용
劉備, 關羽, 張飛	呂布, 貂蟬, 華陀	劉備, 孔明, 孫權, 周瑜	劉備, 曹操, 孫權, 周瑜, 關羽, 張飛

그렇다면 인물 관계와 특징을 살린 대화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우선 “개인 생활편”의 ‘말다툼(ケンカ)’이다.

(8)

(상 황: 주식을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유비. 줄곧 결정을 하지 못하는 유비에게 관우와 장비가 답답해하다 결국 말다툼에 이른다[株を買うか買わないかで迷っている劉備。いつまでたっても決められない劉備に、關羽と張飛がイライラ。ついにケンカになってしまう。])

張 飛: 大哥, 你還拿不定注意啊!

關 羽: 快點兒買吧。

劉 備: 你們怎麼這麼沒有耐心啊?這種事兒不慎重怎麼行啊?

張 飛: (等了一會兒)還沒買啊?我受不了啦。

關 羽: 說甚麼呢, 你, 這麼沒禮貌!

예(8)의 대화를 보면 짧은 대화 속에서도 유비, 관우, 장비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예컨대, “大哥”로부터 劉備가 가장 연장자임을 알 수 있고 “這麼沒禮貌”라고 할 수 있는 關羽의 말로부터 張飛가 가장 연소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물의 특징 역시 잘 드러나 있는데, “你還拿不定注意啊”, “我受不了啦”로부터 성격이 급한 張飛를 볼 수 있고 劉備에게 “快點兒買吧”라고는 했지만 실례를 범한 張飛에게는 “你, 這麼沒禮貌”라고 한 關羽의 발언으로

부터 식자(識者)의 풍격을 읽을 수 있으며 “這種事兒不慎重怎麼行啊”라는 말로부터 劉備의 신중함을 볼 수 있다. 교재는 예(8)의 대화 뒤로 ‘말다툼’이라는 주제에 맞게 ‘입씨름(言い争う)’이란 섹션을 두고 대화 속 표현에 대한 확장—“你怎麼搞得”, “你到底買不買啊”, “幹甚麼你” 등의 ‘마스터 표현(マスター表現)’—과 “你少廢話”, “你敢”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바깥생활”의 ‘약속’을 보자.

(9)

(상 황: 일요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초선. 그곳에 빨간 오토바이를 탄 여포가 나타난다.[日曜日. 待ち合わせ場所で待っている貂蟬. そこへ、赤いバイクに乗った呂布がやってくる。])

呂 布: 不好意思, 路上堵車, 讓你久等了。

貂 蟬: 沒關係, 我也剛到。

呂 布: 今天去哪裏?

貂 蟬: 去長安百貨店怎麼樣?

呂 布: 那裏剛開業, 好像有促銷活動。

貂 蟬: 好啊, 我們快去吧。

예(9)의 대화문을 보면 우선 눈의 띠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사실 呂布와 貂蟬 간의 관계는 진정한 연인관계가 아니지만 교재에서는 이 둘의 정략적 관계를 연인관계로 풀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상황’에서 언급된 “빨간 오토바이(赤いバイク)”와 대화문 상의 “장안백화점(長安百貨店)” 등을 통해 과거와 현대를 절묘하게 섞어놓았다는 점이다. 즉, 대화문에서 “赤いバイク”는 여포가 탔다고 한 ‘적토마(赤免馬)’를, “長安百貨店”의 “長安”은 한나라 수도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여포가 늦게 나타난 점 역시 이기적인 呂布의 성격을 예들려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대화가 과거에만 기대고 있지는 않다.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呂布의 물음에 백화점을 가자고 한 貂蟬의 대답에서 쇼핑을 좋아하는 현대 젊은이들의 선호도 역시 보여준다. 나아가 呂布와 貂蟬의 이야기는 예(9)의 ‘약속’에서 끝나지 않는다. 뒤를 잇는 “바깥생활”편의 ‘길묻기’에서는 呂布와 貂蟬이 장

안백화점 가는 길을 묻고, ‘구매’에서는 呂布가 貂蟬에게 립스틱을 사준다. 그리고 ‘계산’에서는 呂布가 貂蟬과 식사 후 밥값을 계산한다. 이 과에서도 ‘약속’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약속 표현(待ち合わせる)”이란 섹션을 대화문에 이어서 두고 ‘마스터 표현(マスター表現)’과 더불어 만남과 관련한 기타 표현들로 학습의 확장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가격홍정’을 보자.

(10)

(상 황: 업무제휴를 위한 협상에 나선 제갈공명. 꺼려하는 손권사장과 주유부장을 설득한다.[業務提携の交渉をはじめた孔明。乗り気ではない孫権社長、周瑜部長を説得する。])

孔 明: 這項業務合作, 不儘對我們公司, 對貴公司也有很大益處。

周 瑜: 我并不這麼認為。與貴公司合作風險太高。

孔 明: 你說得很對, 但錯失這次機會的話, 肯定會後悔。

周 瑜: 既然這樣, 你們的心理價位是多少?

孔 明: 請看報價表。

孫 權: 價格必須再低些。

예(10)의 대화는, 曹操에 맞서기 위해 劉備와 孫權이 손을 맞잡아야 하는 상황을 비즈니스 상의 가격홍정이라는 장면에 대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삼국지의 스토리에 기대어 본다면, 曹操의 대군 앞에서 劉備, 孫權 진영 모두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어떻게든 상호 협조해야 하나 그렇다고 劉備에게 孫權이 조건 없이 협조할 마음도 없었던 상황을 교재는 ‘가격홍정’이라는 상황으로 대입시키고 있으며 孔明의 “不儘對我們公司, 對貴公司也有很大益處”와 周瑜의 “與貴公司合作風險太高” 그리고 孫權의 “價格必須再低些”란 말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예(10)의 대화문은 예(8), (9)와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상황적 비유로 설정되어 있다.¹³⁾

물론 상기 든 예를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보충해야 할 여

13) 만약 수업에서 이 같은 대화문을 교수학습할 경우 문화적 측면에서는 부가적으로, 劉備—孫權의 협공 결과가 적벽대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 가능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적벽(赤壁[吳宇森 作])』—라는 매체의 이용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지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세 번째 유형의 교재구성은 ‘언어와 문화 중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어떤 것도 소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어떤 것도 소홀할 필요가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나아가 『談文化』에서 보인 대화자 간 균형상의 비평형성 문제를 재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또한 “說曹操, 曹操到”, “三個臭皮匠, 頂個諸葛亮”이나 “三顧茅廬”, “刮目相看” 등 현재까지 중국인들의 입말에서 사용되는 관용표현이나 성어를, 추상적 차원의 설명이나 단순 뜻풀이로부터 벗어나, 문학 및 문화적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 소재 중심의 교재 구성에 단초를 제공해준다.

V. 요약과 함축

지금까지 본고는 언어사회화란 관점을 토대로 회화교재 상에 드러난 문화 기술의 단일 방향성과 『談文化』에 드러난 대화구조 상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였고 언어와 문학/문화 간의 분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문-문화 간 통합 교재의 구상을 위해서 한일 교재도 검토해 보았다.

본고의 분석과 검토가 갖는 함축은, 외국어 학습이 ‘그저 언어’ 학습으로만 머물지 않으므로 타 언어가 가진 맥락과 그것을 받쳐주는 사회적 배경의 교수 학습이 필요하며 그것의 수행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시각의 견지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시각이 수용되어야 비로소 언어 따로 문화 따로 또 문학 따로 생각했던 사고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언어만 좋아해서’ 또는 ‘문학이 어려워서’ 언어 수업만 듣는다든지 또는 그 반대 현상이 줄곧 이어져왔던 이유는,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환경이 쪼개고 분리하는 데만 익숙했지 모든 것이 인문이라는 환경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고민을 하지(또는 던지지) 않았던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융합과 통합, 통섭을 주창하는 시대 속에서 언어 학습이 그리고 교재가 향후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야할지 문화라는 ‘삶’을 중심으로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왔던 것들을 낫설게 바라보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천착해왔던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하수, 「한국어 교수-학습을 위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그 철학의 출발점과 행선지를 찾아서」, 『문제로서의 언어1: 사회와 언어』,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김효민, 고점복 편역, 『최신 트렌드로 배우는 新문화』, 다락원[劉德聯, 宋海燕, 張麗編(2006), 時尚漢語, 世界圖書出版公司], 2008.
- 맹주익, 「중국어 교육 중 문화교육의 원칙에 대하여」, 『중국어언어연구』 34, 2011.
- 박찬욱, 「중국어 교재 내 질문화행 연구 — 『신보보고중국어』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35, 2011.
- 박찬욱, 「중국어 말하기수업에서의 문화교육이 지향할 점에 대하여」, 『인문학논총』 36, 2014.
- 범노신, 박계연, 『PR Korea 우리 문화 중국어로 자랑해보』, 원타임즈, 2008.
- 백경숙, 「한국의 대학 영어교육과의 문화 관련 교과목 분석을 통한 제언」, 『사회언어학』 20(2), 2012.
- 임대근 편역, 『중국문화로 배우는 중국어 회화』, 다락원[楊瑞, 李泉編(1999), 漢語文化雙向教程,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2000.
- 임대근, 『한국통중국어』, 다락원, 2014.
- 한상복, 이문용, 김광익, 『문화인류학』(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咸恩仙, 『文化中國語』, 차이나하우스, 2006.
- 羅貫中원작, 이항규 편역 『한 권으로 독파하는 삼국지』, 동해, 2000.
- 吳曉露 主編, 『說漢語 談文化』,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997.
- 張一帆 編, 『三国志登場人物で学ぶ中国語 はじめて会話集』, 東京: 日中通信社, 2012.
- HUTCHBY, Ian, Robin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 MA: Polity Press, 1998.
- KASHER, Asa, Question, *The Pragmatics Encyclopedia*, edited by Louise Cummings, London: Routledge, 2010.
- OCHS, Elinor, *Culture and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Acquisition and Language Socialization in a Samoan Vill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OCHS, Elinor, Socialization, *Journal of Linguistic Anthropolgy* 9(1~2), 2000.
- SWANN, Joan, DEUMERT Ana, LILLIST Heresa, MESTHRIE Rajend, *A Dictionary of Sociolinguistics*,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2004.
- YAN, M. M., JENNIFER L. L., *Interactions I: A Cognitive Approach to Beginning Chinese*, Taipei: SMC publishing inc, 1998.

네이버 일본어 사전, <http://jpdic.naver.com>.

다음 일본어 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jp>.

❖ ABSTRACT

A Study on the Conversation Textbooks with Chinese Culture:
an Analysis of the Problems on *Talking Culture* and
Comparison with Textbooks of Korea, Japan

Park, Chan-Wook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onversation structure on *Talking Culture*(『說漢語 談文化』) that is one of the conversation textbooks about Chinese culture and investigate Chinese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Japan from a integration point of view among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for improving upon the problems on *Talking Cultu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before analysing and investigating, considered the concept of language socialization on learn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and on the basis of it, analysed the conversation structure of *Talking Culture*. And then this study examined how we should organize the structures and contents when making conversations in Chinese textbook related with culture in compared with the Chinese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Japan.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when composing a conversation textbook with culture, we not only need to pay attention not to have an inclination for conversation structure, but need to make use of the contents in Chinese literary and culture works for organizing convers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among language, literature and culture.

Key Words

conversation textbook, Chinese culture, *Talking Culture*,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Japan, directions, integration.

논문접수일: 2015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5년 09월 07일

게재확정일: 2015년 09월 08일